

모란봉전자악단을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

교수 박사 김 경 철

1. 서 론

대중을 혁신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음악,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예술을 창조하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음악을 위한 음악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음악은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주체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결심하고 새로 조직한 모란봉전자악단에서는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서적요구에 맞는 음악을 창조하고 공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음악예술이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우시여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업적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란봉악단은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들어선 시대, 내 나라, 내 조국땅위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시대, 거창한 변혁의 시대이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했던 장엄한 투쟁의 시대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와 같이 인민들의 심장을 당에 대한 뜨거운 충정으로 불타게 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해주는 산음악, 전투적인 예술을 창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현실발전의 요구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으신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한 모란봉악단(당시)을 조직해주시고 악단명칭도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달도록 하시였으며 모란봉전자악단이 당의 의도와 당정책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적극적인 선전자, 관철자가 되어 사회

주의장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대중을 혁신과 위훈으로 추동하는 공연,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을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며 실현해나가게 되었다.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주체혁명의 새시대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관록있고 전도유명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위력한 예술집단을 꾸려주신것이다.

시대의 본보기악단은 곧 시대의 문학예술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악단이다.

전반적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본보기악단이 되자면 악단을 인민의 심장을 달구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동하는 생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악단으로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렬을 관록있고 전도유명한 음악재사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집행의 척후대, 본보기가 되여야 할 모란봉전자악단에 있어서 창작가, 예술인대렬을 잘 꾸리는것은 악단의 강화발전과 관련되는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을 관록있는 창작가들로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창작활동과정은 작품의 종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형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로부터 창작은 경험있고 재능있으며 개성이 뚜렷한 창작가들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을 지난 기간 창작활동실천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고 그 재능과 개성이 뚜렷한 관록있는 창작가들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만수대예술단과 왕재산경음악단, 보천보전자악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에서 명성을 떨친 음악재사,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사랑해오는 작가, 작곡가, 예술인들로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이 꾸러지게 되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앞장에서 떠받드는 믿음직한 창작의 대들보들로 성장한 창작가들이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력량을 이루게 됨으로써 모란봉전자악단은 고고성을 올린 첫날부터 기성관례를 깨뜨리고 음악예술의 모든 면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본보기악단으로서 명성을 높이 떨치게 되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형식과 구성에 맞게 전도유명한 수재급의 젊은 배우들로 예술인력량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 음악예술은 사람들에게 생기와 약동을 주고 기백과 활력을 주는 예술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대의 본보기악단을 꾸리자면 악단의 형식과 구성자체에서부터 기성의 틀을 깨뜨리고 새것을 창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시였던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과 구성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악단으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1980년대 음악이 상품화되고 흥행업자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때문에 기껏 5~6명 정도의 소규모 전자악단밖에 만들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 전자음악의 위력을 최대로 떨칠수 있게 독특한 편성의 전자악단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4명이상이나 되는 세계에 없는 큰 규모의 전자악단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악단의 형식과 규모, 사명에 맞게 전도유망한 남자배우들로 전자악단이 구성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이 새로운 안목으로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진취적이고 약동하는 사상감정과 투쟁기풍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미학관, 음악예술사상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악단을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악단을 전기바이올린, 전기첼로 등 새로운 전기현악기들을 받아들인 경음악단으로 만들며 그 규모에서는 모란봉전자악단보다 작게 하도록 하시고 성악력량을 젊고 약동하는 시대의 모습, 눈부신 조국의 미래를 반영하여 생신하고 전도양양한 수재급의 녀성배우들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독특한 형식의 경음악단이 주체101(2012)년 3월에 조직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정력적인 지도로 모란봉전자악단을 위력한 예술집단으로 강화해나가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조직해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른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을 내시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며 공연을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6일 새로 조직된 모란봉전자악단의 시범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불과 10여명의 연주자들이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대관현악단이 내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도 장쾌한 선율을 멋들어지게 울렸으며 젊은 가수들은 노래를 정서적이고 흥취나게 불러 무대를 시종 격정의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짜인 안삼불과 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키였다.

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음악과 함께 세계명곡들도 특색있게 형상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은 짧은 기간에 몇쟁이에예술집단으로 되었다고, 모란봉악단은 우리 식의 독특한 새로운 경음악단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 모란봉전자악단이 전승절과 청년절경축공연, 조선로동당창건 67돛경축공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축하하는 공연, 주체102(2013)년 신년경축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104(2015)년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을 통하여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을 노래하고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

전자악단의 합동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모란봉전자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 형상하여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예술인으로 성장한 창작가들과 배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하여 명예칭호를 안겨주시고 훈장도 수여하도록 해주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은 관록있고 전도유망한 음악재사들로 튼튼히 꾸러지고 창작활동을 통하여 세련되고 단련된 예술집단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으로 새시대의 본보기예술단체가 되게 하신것이다.

혁명적인 창조기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공연하여 강국건설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예술집단, 당의 목소리로 인간개조와 사회발전을 선도해나가는 예술집단만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가는 시대의 본보기악단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확립하자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당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악단의 모든 기악편성과 무대조명, 배우들의 분장과 소도구 등 형상요소들의 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기성의 낡은 틀을 깨고 세계적수준을 돌파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은 독자적인 자기 얼굴을 가진 국가 예술단체이면서 당에서 직접 지도하는 악단인것만큼 예술활동을 어디까지나 당에서 세워준 기준대로 하여야 하며 자연주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철저히 우리 식으로,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리고 모란봉전자악단 배우들은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하여 기량이 높고 자기의 얼굴과 개성을 가진 명연주가, 명가수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란봉전자악단이 진취적이고 참신한 음악으로 젊음이 약동하는 새시대를 노래하는 예술집단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이 준 과업을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창조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시었다.

당이 준 예술창작과제를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집행하는 혁명적창조기풍이 신 예술단체만이 본보기예술단체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찾으실 때마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당이 준 음악창작과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이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의 전과정을 혁명군대식으로 진행해나가면서 군대와 같은 정연한 지휘체계, 조직체계, 행동질서가 확립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신 조치는 모란봉전자악단을 시대의 본보기예술집단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었다.

전장에 별이 빛나는 군복을 받아안은 그 순간부터 모란봉전자악단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사명과 임무,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자각하게 되었으며 악단의 면모와 기풍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모란봉전자악단에서는 인민군대에서 타번지는 훈련열풍이 창작창조활동에 그대로 구현되게 되었고 이것은 그대로 창작가, 예술인들의 당성단련과정으로 되었다.

주체101(2012)년 8월 모란봉전자악단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짜주신 화선공연작전안을 받아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자면 48시간동안에 23개 종목의 작품을 새로 창조형상하여야 하였다.

악단이 조직된지 불과 몇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화선용사들처럼 즉시에 창조전투에 진입하였다.

편곡과 형상 등 배우들의 긴장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그들은 렬차행군을 하면서 이틀동안에 공연준비를 완전히 끝냈으며 현지에 도착하여 화선공연을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악단이지만 시대의 제일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 예술단체, 군인집단에서만 보고 느낄수 있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을 지닌 예술집단으로 이름떨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모란봉전자악단이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기성의 형식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세우는것은 시대의 본보기악단으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이 자기의 얼굴과 특성을 살려나가자면 편곡을 잘하고 공연종목을 바로 정하며 배우들이 형상을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서정적인것도 하고 리듬이 강한것도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작품창작과 형상과정에서 종래의 관례를 대담하게 깨뜨려버리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이 새것을 보지 못하고 모대길 때에는 편곡의 새 지식을 가르쳐주시며 그들의 경직을 풀어주시고 창작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에게 우리 식의 새로운 리듬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화성조직도 도식적인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특색있게 하며 편곡에서 기본선률과 밀착된 제2의 선률을 완전히 새롭게 뽑아내는것을 비롯한 변화무쌍하고 파격적인 창조의 세계를 펼쳐주기도 하시고 작품들의 리듬 하나, 화성기호 하나에도 품을 들여 완성해주시였으며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않은 기성작품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시 편곡하여 새것으로 부활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활무대도 마련해주시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승리자들》과 같은 작품들이 독특한 편곡양상을 가진 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시대적 명작이 태어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 어린 신인가수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훈련을 힘있게 내밀수 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가수들의 노래형상기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받아들이되 그대로 본뜬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으로 잘 소화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악단가수들이 형상할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의것보다 더 멋들어지게 해야 한다고 그 방도까지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를 노래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형상에서 자기의 얼굴과 특색을 살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음정과 발음, 호흡계기와 절정대목선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한 가수의 창조형상을 위하여 몸소 성악교수안까지 짜주시고 범창까지 해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이 예술창조에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근본비결도 바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었다.

초기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는 악단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녀성악단들의 우에 울려세우겠다는 포부를 앞세우던 나머지 다른 나라의 예술단을 모방하는데로 나가는 편향이 나타났었다.

이것을 포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른 나라의 유명한 악단의 음악을 채보하여 형상하는것도 좋지만 민족음악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에 못지 않게 만드는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선률을 위주로 하는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음악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뿐아니라 모란봉전자악단의 배우들이 비행사들앞에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비행복을 입고 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량강도인민들앞에서는 항일의 군복을 입고 《빛나라 정일봉》, 《대흥단 삼천리》와 같은 그들의 생활과 가까운 종목들을 펼치도록 세심히 관심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벌리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야말로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예술창작창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일군들과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갔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당이 준 과업이라든가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예술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모란봉전자악단을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투적인 공연활동으로 강국건설을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가 되게 하신것이다.

예술은 시대정신과 사회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약동하는 기상을 안겨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약동하는 새시대에 맞게 음악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이끌어나가고있다고, 대중을 혁신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음악,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예술을 창조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모란봉전자악단의 시범공연을 보아주시고 이 공연은 한개 예술단체의 형식과 방법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따라배우고 참고하여야 할 방향을 주는 공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모란봉전자악단공연을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 주어 그들을 혁신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모란봉전자악단을 새로 내온것은 특히 우리 청년들의 깨끗한 모습을 지켜 주고 그들의 끓는 피를 더 끓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침략의 주역이 되고있으며 그 기본공격대상은 바로 청년들이다.

퇴폐적인 사상문화의 독소가 밀려드는 속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에서 품들여 키운 청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슴아픈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청년들의 밝은 웃음과 깨끗한 모습을 지켜주자면 부르조아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까지도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용기와 열정, 포부를 가다듬게 하는 멋진 음악형상을 창조하여야 하며 자본주의것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예술의 바다를 펼쳐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과 감정이 통하고 호흡이 맞는 모란봉악단공연을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청년들에게 모란봉전자악단공연을 많이 보여 주어 그들의 끓는 피를 더 끓게 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주요국가적명절과 대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이 힘있는 공연활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주요명절들과 대회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떨치고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그들을 강국건설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승절, 당창건기념일,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을 비롯한 주요명절들과 여러 대회, 행사를 계기로 모란봉전자악단의 공연을 하도록 하시고 공연 준비로부터 날자와 공연장소, 공연종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주체101(2012)년 7월 전승절경축공연, 주체101(2012)년 10월 당창건 67돛경축공연, 주체102(2013)년 1월 신년경축공연, 주체102(2013)년 10월 당창건 68돛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참가자들을 위한 합동공연, 주체103(2014)년 4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주체104(2015)년 4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공연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명절들과 대회들에서 진행된 공연활동을 통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참신하고 활력있는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뚜렷이 살리며 주체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모란봉전자악단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화선식공연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었다.

들끓는 전투장에서 힘있는 화선식공연활동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지혜를 최대한 발동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상사업방법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의 화선공연을 맡기하시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지역과 대상, 강국건설에서 맡고있는 임무와 특성에 기초하여 몸소 공연의 종자와 주제, 곡목의 구성과 배우들의 의상, 무대장치, 악단성원들의 활동질서와 로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화선공연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모란봉전자악단은 주체102(2013)년 4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주체102(2013)년 6월 자강도로동계급들속에 들어가 공연을 하였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평양에서의 공연에 이어 량강도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전자악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란봉전자악단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통하여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어나가는 제일기수로서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을 받아안은 모란봉전자악단은 첫 공연에서부터 백두산기슭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힘있는 음악포성을 장쾌하게 울리었다.

주체103(2014)년 4월 4일 삼지연군에서 진행한 첫 공연에서 항일의 녀대원들의 군복차림을 한 출연자들은 항일혈전의 나날 밀림속의 승전가를 높이 울려가던 투사들처럼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공연으로 관람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녀성독창 《희망넋친 나의 조국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아버지》,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녀성3중창 《하늘아래 첫집》, 바이올

린독주와 경음악 《매혹과 흠모》, 녀성2중창과 방창 《빛나라 정일봉》,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특히 《하늘아래 첫집》, 《빛나라 정일봉》, 《백두의 말발굽소리》,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와 같이 량강도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이어지고 그들이 남달리 좋아하며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는 명곡들이 흘러나오자 공연장소는 크나큰 환희와 걱정으로 더욱 설레하였다.

공연의 모든 곡목들은 삼지연군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명중포화의 선물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신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백두산아래 삼지연군에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제일먼저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예술인들, 소년단원들속에서까지 들어가 전투적으로 진행된 모란봉전자악단의 화선공연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나타내었으며 국보적예술단체로서의 악단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악단의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널리 선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의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굳어진 사고방식과 밝은 틀을 마스고 자기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최단기간내에 결사관철하는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혁신적안목으로 끊임없이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세차게 휘몰아치게 되었다.

시대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며 문예전선의 제일근위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모란봉전자악단의 역할에 의하여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고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정신력이 활화산같이 폭발되어 건설분야에서 대변영기가 펼쳐지고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등 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군길에서 매일, 매 시각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란봉전자악단은 살아 숨쉬는 예술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가 되어 우리 당정책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적극적인 선전자, 관철자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되었다.

3. 결 론

지금 온 나라 어디에서나 모란봉전자악단에 대한 이야기가 꽃피어나고있으며 초소와 교정, 일터마다에서 모란봉전자악단의 새 노래들에 대한 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음악포성의 메아리는 전체 인민을 무한히 흥분시키며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의 음악에 바로 당의 목소리, 시대와 혁명의 요구가 담겨져있으며 이 음악은 우리 인민이 어떤 정신과 투쟁기풍, 창조방식으로 총공격전을 다그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와도 같다.

오늘 우리 당은 약동하는 새시대에 맞게 음악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이끌어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모란봉전자악단의 혁명적노래포성이 즐기치게 울려퍼져 우리 당의 음악예술전통의 순결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총폭발되어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란봉전자악단을 조직해주시고 그것을 주체혁명의 새시대 본보기악단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나날들을 기적과 환희로 찬연히 빛내이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의 음악예술건설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모란봉전자악단, 창조기풍, 순회공연